

현대중공업(주)

불가리아 변압기공장 인수

現 代重工業(사장 金正國)이 重電機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불가리아에 해외 現地 생산체제를 구축했다.

現代重工業은 최근 불가리아 국영기업으로 超高壓 電力用 變壓器 생산업체인 「엘프롬 트라포(ELPROM TRAF0)」社를 3백만불에 인수했다고 밝혔다.

공장인수 계약에 따르면 現代重工業은 「엘프롬 트라포」사의 종업원, 資産 및 負債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보유 주식 70%를 미화 3백만불에 인수하고 사업정상화를 위해 향후 4백만불을 추가로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現代重工業은 이와 함께 회사 명칭을 「現代-엘프롬트라포(HYUNDAI-ELPROM TRAF0 Co.)」로 바꾸고 공장관리와 기술지도를 위해 본사 직원을 현지에 파견하는 등 이달 초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엘프롬 트라포」社는 불가리아의 수도인 소피아(Sofia)市에 위치하고 있으며, 7만 4천평 부지에 최고 420kV급 超高壓 變壓器까지 제작할 수 있는 설비와 기술을 보유한 불가리아에서 유일한 電力用 變壓器와 變壓器 핵심부품인

탭전환기(Tap Changer)를 생산하는 업체다.

1950년에 설립된 이 회사는 연간 약 3천MVA의 變壓器를 생산하여 그리스 등 유럽국가는 물론 이집트, 레바논 등 중동권 국가에까지 수출해왔으며, 지난해 약 1천만불의 매출을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회사는 국내에서는 자체 제작할 수 없어 전량 수입에 의존했던 탭전환기(Tap Changer)의 독자기술까지 확보하고 있어 앞으로는 연간 3백만불의 수입대체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現代重工業은 이 회사를 EU지역과 중동, 북아프리카 시장 등 유럽 및 東歐圈 진출의 전진기지로 활용하여 해외시장을 확대해나갈 예정인데, 이를 위해 생산체제를 2000년 초반까지 5천 MVA급까지 높여 연간 3천만불의 매출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現代重工業 重電機 부문은 造船分野에 이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부문으로서 국내시장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 매출을 지난해 보다 35.7%로 대폭 늘린 1조 1770억원으로 잡고 있다.

지난 '94년부터 중국, 벨기에에 중장비공장, 베트남에 동안공장 등 해외법인 설립과 함께 현지생산을 확대해나가고 있는 現代重工業이 이번에 한국기업으로는 최초로 불가리아에 진출하게 됨에 따라 해외시장 확대는 물론

韓-불가리아간 경제협력을 더욱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중공업(주)

인도 내연발전소 합작 건설

한 국중공업(사장 朴雲緒)은 인도도 HI-TECH 그룹과 합작으로 30MW급 내연 발전소 2기를 인도 펀잡(PUNJAB) 지방에 건설키로 했다.

한중 박운서 사장은 지난 9월 12일 삼성동 서울사무소에서 HI-TECH 그룹의 DR. A.S.BINDRA 회장과 약 3천만 달러에 HI-TECH 내연발전소를 건설하는 계약에 서명했다.

계약에 따르면 한중과 HI-TECH 그룹의 지분은 26:74이며 한중은 이 발전소의 설계 및 제작, 건설에 이르는 전공정을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방식으로 공급하게 된다.

이 발전소는 오는 '98년 2월에 착공, 1호기는 19개월만에, 2호기는 20개월만에 각각 준공될 예정이다.

HI-TECH 그룹은 이에 앞서 펀잡주의 전력청(PSEB)으로부터 민자사업방식으로 사업권을 획득, 계열사인 펀잡

화력발전주식회사(PTPL: PUNJAB THERMAL POWER LTD.)가 한중 과 이 발전소의 건설 및 운영에 따른 합 작사업을 추진해 왔다.

HI-TECH 그룹은 주력 사업인 축산 물 가공업 등을 하고 있는 인도 중견그 룹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발전사업에 참 여하게 됐다.

한중은 그동안 인도 지역에 38MW 규모의 DCM-Daewoo Motors 내연발 전소를 비롯, SIL 내연발전소, 에사르 (Essar)복합 화력발전소, 코르바웨스 트 화력발전소, 인도 라마군담 화력발 전소 등을 수주, 현재 건설중에 있으며 지난 7월에는 3억달러 규모의 355MW 급 콘다팔리(Condapalli) 복합화력발 전소를 수주하는 등 인도시장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편, 발전설비 및 산업플랜트 생산 전문업체인 한국중공업이 여수화력발 전소 탈황설비 설치공사를 계기로 환경 설비 사업분야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 다.

한중은 품질과 기술 및 시공능력을 인정받아 한국전력으로부터 440억원 규모의 여수화력발전소 1,2호기 탈황설 비 설치공사를 수주, 착공했다고 밝혔 다.

이 사업은 여수화력의 200MW와 300MW 발전소에 탈황설비를 각각 설 치하는 공사로 한중은 기자재를 창원공 장에서 제작, '98년 12월말까지 설치할 예정이다.

탈황설비는 발전 및 산업용 보일러와 소각로 운전 과정에서 발생되어 대기를 오염시키는 황산화물(SO_x)을 제거하는 장치로 이번 여수화력에 설치되는 설비 는 제거율 90%의 우수한 성능을 갖고 있다.

또한 이 설비는 유지비가 많이 들고 2차오염 문제가 있는 일반 전기집진식 과는 달리 습식방식으로 공해가 전혀 없는 양질의 석고가 부산물로 생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한중은 이밖에도 21세기 그린라운드 에 대비해 플라즈마 탈황탈질 시스템, 고효율 전기집진기 등 각종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획기적으로 제거하는 설비를 국내최초로 개발함으 로써 미래유망사업인 환경설비사업에의 본격적인 진출을 꾀하고 있다.

특히 한중이 지난 '95년부터 10억원 을 투자해 개발한 0.5MW급 시험용 플 라즈마 탈황탈질 시스템은 화석연료 연 소시 발생하는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을 동시에 95%와 80% 이상 제거할 수 있는 고정정, 고효율 환경설비로 일 본, 이탈리아와 같은 선진국에서도 한 창 연구가 진행중이다.

한중은 이 시스템을 2000년까지 대 형 발전소에 실용화할 계획이다.시스 템이 실용화될 경우, 그동안 각종 발전 소 및 소각로 사업 추진시 발생했던 환 경단체 및 주민들의 민원문제를 상당부 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 다.

한국전기공업진흥회

일본 전력기자재 시장 진출 세미나 개최

한 국전기공업진흥회는 대한무역 투자진흥공사와 공동으로 지난 9월 25일 KOTRA 12층 대회의실에서 중전기 업체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주요 수출시장으로 부 각되고 있는 일본의 전력기자재 시장에 대한 국내 중전기 업체의 진출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일본 전력기자재 시장 진출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일본 동경전력의 유키오 기무라 자재부장이 특별 연사 로 초청되어 일본전력업체의 해외조달 규모 및 향후 시장전망 등 전력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한국산 중전기 구매현황과 제 품 품질에 대한 평가, 구매희망 품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 앞으로 국내 중전 기기 업체의 대일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 자리에서 국 내 중전기 업체의 대일 진출전략 및 마케팅 활동시 유의사항과 동경전력의 국별조달현황 등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 었다.

이와 함께 이번 동경전력구매단은 보 성중전기, 대한전선, 한보공업을 방문,

국내 증전기 업체 생산현장 견학과 상담도 벌이게 된다.

한편, 일본은 전기사업법 개정과 전력요금을 2001년까지 20% 인하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일본 전력회사들이 원가절감을 위해 철탑, 변압기 등 전력기자재 도입선을 국내에서 해외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경전력은 지난해 250억엔 상당의 기자재를 해외에서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미국으로부터 190억엔, 우리나라에서 13억엔 상당의 전력기자재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흥회에서는 이번 세미나 내용을 책자로 별도 발간, 회원사에 배포하여 대일 전력기자재 시장 진출의 참고 자료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희성전선(주)

정보통신분야 집중 육성

희 星電線(대표 裴恩出)이 정보통신분야를 집중 육성한다.

희성전선은 지난 9월 24일 창립 50주년 기념행사를 갖고 기존 전선사업과 전선연관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향후 21세기 정보사회를 대비해 정보통신사업에 적극 진출하기로 하는 등 제2의 창업을 위한 「도전 2005」 중장기 비전을

채택했다.

지난 '57년 국내 전선업계 최초로 PVC케이블을 생산함으로써 전선분야에서 탄탄한 바탕을 다진 희성전선은 지난해 일본의 쇼와전선과 광통신케이블에 관한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 광통신케이블 시장에 진입했다. 동사는 올해 광섬유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는데 전주공장에 1백억원을 투자, 내년까지 광섬유 제조설비를 설치해 자체생산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희성전선은 또 사업다각화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선연관사업의 경우 자체 연구개발 및 세계일류 기업과의 기술 제휴를 통해 기술을 확보하고 향후 정보사회를 대비해 21세기에는 LAN 등 정보통신분야를 주력사업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삼화기연(주)

해외 현지법인 설립 추진

모 터보호용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 업체인 三和技研(대표 金仁錫)이 해외 현지법인을 잇따라 설립, 글로벌 경영에 나선다.

동사는 오는 2000년 해외 현지법인 7개에 해외대리점 1백개점을 구축하고 수출 1억달러를 돌파한다는 목표아

래 유럽 인도 미국 등에 현지법인을 설립한다고 밝혔다.

삼화기연은 이에 따라 올해는 아세안 블록에 대처하기 위해 베트남에 삼화엔지니어링을 설립, 호치민시 탄투안 수출공단에 150만달러를 투자해 현지공장을 설립한다.

올해말 완공 예정인 베트남 공장에서는 계전기를 월 3만개 6억원어치 가량 생산, 베트남과 필리핀, 파키스탄 등에 수출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인도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최근 현지 관련 전시회에 출품해 시장성을 조사한데 이어 올해중에 법인 설립을 추진중이다. 또 유럽과 미주시장을 겨냥, 현지 세일즈 조직을 구성중이며 내년중에 미국과 유럽에 현지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다.

기존의 중국 현지법인은 현지 영업대리점 확충에 주력, 현재 13개인 대리점을 올해말까지 30개로 늘려 중국 각성마다 영업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중국에는 지난 '93년 천진시에 한·중합자 회사를 설립했으며 '95년에는 북경에 현지법인을 세웠다. 삼화기연은 이를 통해 올해 4백만달러 수준인 해외수출 물량이 내년에는 8백만달러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삼화기연은 또 해외현지 영업점에 대폭적인 영업지원과 독특한 리베이트제도를 도입, 빠른 시간에 해외법인 수출 목표 1억달러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화기연은 지난 '81년

모터보호용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를 개발하면서 설립된 전문기업으로 매출규모는 120억원이며 해외에 16개의 현지 대리점을 두고 있다.

LG산전(주)

전자식 모터보호 계전기 개발

LG 産電(대표 李鍾秀)이 전자식 모터보호계전기(EMPR :Electronic Motor Protection Relay)를 순수 자체 기술로 개발하고 시판에 들어간다.

모터보호계전기란 전자접촉기와 함께 모터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기로서 바이메탈 동작에 의한 열동형 과부하 계전기가 주류였으나, 점차 전자식 모터보호계전기로 대체되어 가는 추세이다.

이번에 LG산전에서 개발한 전자식 모터보호계전기는 노이즈(Noise)에 대한 특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고 국내 제품으로는 처음으로 전자파 적합성 시험(EMC: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인증을 거쳐 신뢰성을 입증 받았다. 또한 모터의 열 특성 곡선과 유사한 동작특성을 채택하여 모터 보호에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LG모터보호계전기는 이 회사에서 생

산하고 있는 전자접촉기와 완벽하게 조합되는 직결형으로 기존의 연결자와 브래킷 없이도 연결이 가능하여 전자접촉기와 모터보호계전기를 따로 주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졌다. 또한 전자식 모터보호계전기는 주로 전자접촉기와 결합된 개폐기의 형태로 사용되는데, 이 제품을 사용하면 개폐기의 전체 크기도 줄어들어 30% 이상 경제적인 모터 제어반(MCC:Motor Control Center) 구성이 가능하며, 설치 및 조립시간도 단축할 수 있어 인건비와 자재를 절감할 수 있다.

LG산전은 이번에 이 부문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관통형은 물론 단자형, 직결형을 시리즈로 개발하여 기종을 다양화함으로써 적용 가능범위를 넓혀 연간 100억원대에 이르는 이 부문 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한편, LG산전은 지난 9월 27일 강남 LG반도체 빌딩에서 엘리베이터 설치부문 협력업체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율안전 결의대회」를 가졌다.

전국의 30개 협력업체 대표 및 안전관계자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 날 결의대회에서 LG산전과 협력업체들은 오는 2000년까지 산업재해 제로에 도전하기로 결의하고, 안전의식 강화 및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공동 추진기로 했다.

LG산전은 또 협력업체의 안전관리 활동의 실질적 지원 방안으로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제', '무재해 학교', '안전 새벽시장' 등의 안전관리지원 활동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인센티브제'는 협력업체의 자율적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안전관리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협력업체에게 등급에 따라 각종 안전장비와 설비 등을 지원한다. 이와 반대로 '안전 새벽시장'은 안전 불량업체 대표 및 안전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특별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변화를 유도하는 제도로 '96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다.

또한 '안전관리 협의체'를 구성하고, 매월 4일과 19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정해서 LG산전과 협력업체가 공동으로 현장을 점검하는 제도로 운영한다. 이 날 결의대회는 산업재해의 절반 이상이 중소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함께 타개,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개최되었다.

그리고 LG산전은 환경안전 초일류기업을 향한 2005년까지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중에 있다.

LG산전은 현재 '무재해학교'라는 독특한 안전기법을 통해 현장에서의 무재해 달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협력업체 임직원을 포함해서 1,900여명 정도가 이 과정을 수료하여 현장에서 무재해 운동의 선봉자로 활동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관리자를 대상으로 'My 현장제도'를 운영, 현장의 안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게 하고 있다. ■